

지주회사

상법 개정안(투명성강화와 경영권위협)을 보는 묘한 입장

2013. 8. 7

지주회사
Analyst 김준섭
02.3779-8919
jskim@etrade.co.kr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상법개정안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우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선출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보도되며, 일부 투자자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감사위원 선출안'에 따라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만 인정받게 되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자신의 뜻에 맞는 감사를 선임해 경영권을 견제하게 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에 비우호적인 세력들에게 유리한 상황(의사결정 전 정보 외부 유출 가능성)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언론 등에 따르면, 다행히 입법주체 들은 일부 수위 조절할 것으로 알려짐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상법개정안인 감사위원 선출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따라, 그만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배주주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려는 인사가 선임될 경우 의사 결정속도 측면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지주회사처럼 자회사의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속도가 중요한 것을 감안하면, 상법개정안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상법개정안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일부의 우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인 것이다.

[표1] 기업지배구조 개선관련 상법개정안

	개정안	도입취지	재계의 반대 논리	비고
집행 임원 도입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임원을 따로 둬	- 집행기능분리로 이사회의 감독 기능강화 - 사내사정과 경영에 어두운 사외 이사들이 감독업무에 전념할 토 대마련	- 감사 선임시 2,3대 주주가 최대 주주를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 형평성에 어긋남 - 외국계 자본 혹은 적대적 M&A 세력이 감사위원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 경영효율성 저하 - 기업의 인력운용과 경영에 대한 지나친 제도의 간섭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적용
감사 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사와 별도로 감사위원을 뽑도록 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함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최대주주외 2,3대 주주의 감사선임 영향력 강화 - 최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견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적용
집중 투표제 의무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때 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	-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보장		추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자료: 언론사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준섭)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